

# 미술교사 출신 4인이 선보이는 함평미술

## 함평군립미술관 특별전 '미술시간'

김광옥·양원철·윤정규·임혜숙  
함평서 교직생활 등 이주 정착  
숫대·연잎 등 심상적 소재 눈길  
산내리 일상과 자연풍경 묘사



김광옥 작 '눈은 뒤'.

함평군립미술관 제공

함평군립미술관이 함평미술을 조망하는 특별전 '미술시간'을 오는 9월 1일까지 연다. 교사 출신 작가 김광옥, 양원철, 윤정규, 임혜숙 4인이 참여하며 지역 발전적 측면에서 함평미술의 의미와 현재를 사유해본다.

전시명 '미술시간'은 참여 작가 4인이 함평과의 인연 외에 모두 교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우리가 학창 시절 어느 선생님을 담당 과목명으로 지칭했듯이, '미술시간'은 어쩌면 미술 선생님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미술 시간을 전담하던 이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자신의 미술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전시는 지역의 '이촌향도' 추세에서 출발한다. 사람들이 지역을 떠날 때, 이번 전시 참여 작가들은 출신지는 다르지만 저마다 함평과 인연을 맺고 함평미술의 현재이자 미래로서 활약하며 함평과 함평미술을 알리는 데 일조한다. 유화, 조각, 동양화 50여점을 감상한다.

먼저, 김광옥과 임혜숙은 함평으로 이주해 정착한 작가들이다.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캠퍼스커플로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작가는 중고교 교사로 오래 재직했다. 우연히 미술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다양한 미술교육의 필요성과 사명감을 깨닫고 2006년 함평군 해보면 산내리에 '잠월미술관'을 설립했으며 전시와 체험활동을 통해 그 뜻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산내리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활동과 전시는 세간의 주목을 받았으며 현대 미술교육 분야에서 화자되는 업적을 이어오고 있다. 미술관 운영과 함께 작가로서 활동 중인 김광옥은 농촌과 산간, 바다 풍경을, 임혜숙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들판의 꽃과 풀을 소재로 한 한국화를 주로 그려내고 있다.

윤정규는 함평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작가이다. 34년간 교사로 재직했으며 조각가이자 숫대 명장으로 활동 중이다. 거주지는 광주이며 함평군 해보면 모평마을에 작업실을 두고 숫대 작업에 전념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 민속 미술로서 숫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나주에 숫대 갤러리를 운영 중이며 함평, 광주, 나주를 오가며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일상의 소재인 숫대는 꿈·소망·희망 등을 담아낸 민속 미술로서 전통미술의 정겨움을 전하고 모든 이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창작과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끝으로 양원철은 함평에서 교사로 재직한 작가이다. 해남 출신의 양원철은 함평군 나산면 나산중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2015년 퇴직했으며 1971년부터 현재까

지 작품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연잎 작가'로 불릴 만큼 연잎을 그리는 데 몰두했으며 1984년·1985년 2회 연속 국전에 입선한 바 있다. 현재는 작품 활동과 더불어 각종 미술대전의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2023년에는 함평군립미술관에 자신의 연잎 작품을 기증하는 등 전남미술의 원로로서 후배 작가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전시는 작가들의 소재를 대하는 방식에 따라 1교시 '담아내기'와 2교시 '바라보기'로 구성된다. 1교시 '담아내기'는 한 가지 소재를 일상의 소재로 삼아 깊이 탐구하여 심상(心象)을 표출한 양원철·윤정규 작가의 작품을 다룬다. 두 작가에게 '연잎'과 '숫대'는 작가의 심상과 염원을 담아낸 표상(表象)으로써 그 깊이와 의미

가 남다른 작품세계를 완성했다. 2교시 '바라보기'는 일상의 소재를 관찰하며 오브제를 통해 전해지는 정겨움과 그리움, 애정과 관심을 그려낸 김광옥·임혜숙 작가의 작품을 다룬다. 두 작가에게 산내리에서 생활하며 보이는 자연의 모든 것들은 작품의 소재로서 작가가 느낀 감상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매개체가 된다.

함평군립미술관 관계자는 "연꽃·숫대·풍경·들꽃 등 소재의 다양성, 전통미술과 현대미술의 상호적 관계, 서양화와 동양화 재료적 특성, 작가들의 개성 있는 작업 방식 등을 감상하며 함평미술의 다채로움을 조명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 수요일엔 광주시립미술관으로

### 전시 '우주의 언어-수' 이벤트

광주시립미술관은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여름특별전 '우주의 언어-수'에 대한 관람객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전시 큐레이터·작가와의 만남 등 수요일 이벤트를 연다.

먼저 오는 24일 오후 3시 '우주의 언어-수' 전시실에서 '흥혜란 작가와의 데이트'를, 8월 7일 오후 3시 광주시립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전시 큐레이터, 흥성미와의 대화'를, 진행한다. 행사 참여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온라인과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시 큐레이터, 흥성미와의 대화'에서는 전시·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자로 활약 중인 흥성미 기획자가 '수학에 관한 4가지 질문과 답변'이란 주제로 강의한다. 기획자는 수학과

학사와 미술학 석사, 미술사학 박사를 전공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로 미술 작품을 매개로 수학을 흥미롭게 풀어낸다. △수학은 무엇인가? △수학으로 배워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수학은 왜 공부하기 어려울까? △그렇다면 수학 공부,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등 네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한다.

또한 '흥혜란 작가와의 데이트'에서는 흥 작가와 관람객이 함께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 제작 배경과 과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흥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오일러 공식에서 영감을 받은 '오일러 공식'과 동양의 우주론을 바탕으로 한 '세상을 만든 도형들', 두 작품을 출품했다.

한편 광주시립미술관 여름특별전 '우주의 언어-수 x 한국미술명작'은 오는 8월 15일까지 이어진다. 도선인 기자

## 광주 출신 '장선 배우전' 절찬리 상영

### 13일 광주독립영화관서 개봉 앞둔 '샤인' 선공개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광주 출신 배우 장선이 출연한 독립영화들을 특별 상영하는 '장선 배우전'을 오는 13일 광주 독립영화관에서 선보인다.

장선은 뛰어난 연기력으로 독립영화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광주 출신의 배우이다.

영화 '소통과 거짓말'을 통해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배우상을 수상했으며 이후 '창진이 마음', '바람의 언덕' 등에서 활약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날 광주독립영화관에서 배우 장선이 출연한 독립영화 단편 3편과 장편 2편이 상영된다. 먼저 오후 1시에 '장선 단편선' 섹션으로, '창진이 마음(공유정)', '빅브



러나기'는 지난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 이후 처음으로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이다.

이어 오후 4시 10분에 '샤인(박석영)'이 상영된다.

이번 상영은 오는 31일 '샤인' 극장 개봉을 앞두고 개최하는 광주 지역 프리미어 시사회다.

영화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GV)가 이어지며, 행사의 주인공인 배우 장선과 '샤인'을 연출한 박석영 감독이 패널로 참석한다. 진행은 광주 영화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이세진 프로듀서가 맡는다.

자세한 정보는 광주독립영화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매는 광주독립영화관 홈페이지·디트릭스에서 가능하며, 현장에서도 가능하다. 관람료는 일반 만원이다.

도선인 기자

## '광주 브랜드 공연 만든다' 광주시립극단 제3회 창작희곡공모전

### 10월 25일까지 기성작가 대상

광주시립극단이 대표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광주 브랜드 공연을 만들기 위해 제3회 창작희곡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광주의 역사, 전설, 인물, 정서 등을 소재로 100분 내외 공연이 가능한 창작희곡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10월 25일까지로 기성작가를 대상으로 한다. 최종 당선작 1편은 12월 6일에 발표되며 상금은 1000만원이다.

공모 출품작은 순수 창작물로 신춘문

예, 문예지 등 어떠한 지면(인터넷 매체 포함)에도 발표되지 않은 순수 창작 작품이어야 한다. 또 공모 및 지원사업에 선정되고 낭독 및 워크숍 등을 포함한 각종 공연에 출품되지 않은 작품이어야 한다.

기성작가 기준은 언론사 등의 희곡 공모에 당선 경력을 가진 자, 개인 희곡집을 출판한 자, 본인 순수 창작 작품이 프로극단의 정식 공연으로 공연된 자로, 이 중에서 1가지만 부합해도 인정한다. 공모신청서 활동란에 기성작가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할 내용 기재 후 증빙자료(공연 프로그램북 사본 및 파일 등)를 제출하면 된

다.

공모신청서는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작성 후 희곡 작품 원고 5부와 함께 광주시 북구 북문대로 60 광주예술의전당 내 광주시립극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gjdrama@hanmail.net) 제출은 희곡 작품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원고 표지에는 반드시 작품명만 기재해야 하고 작가의 성명은 원고의 어느 부분에도 표시되지 않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립극단 (062-511-2759)으로 문의. 도선인 기자

